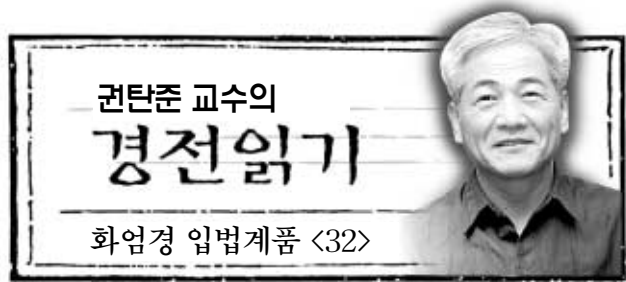


자재주 동자로부터 남쪽의 해주(海州)라고 하는 큰 성(城)에 있는 구족(具足) 우바이를 찾아서 보살도에 대해 물어보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고, 선재 동자는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집에 들어가 보니 그 우바이가 보배자리에 앉아 있는데, 젊은 나이에 살결이 아름답고 단정하였다. 소복단장에 머리카락이 길게 드리웠고, 몸에는 보배 영락과 같은 장신구를 하지 않았지만 그 몸의 색깔과 모습에는 위덕과 광명이 있어서 불보살을 제외하고는 미칠 이가 없었다. 집안에는 보살의 업으로써 이루어진 훌륭한 자리(位)가 깔려져 있었는데 의복이나 음식이나 살림살이 도구는 없고, 앞에는 조그만 그릇 하나만 놓여 있었다.

또 일만이나 되는 동녀가 주위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데 아름답고 단정한 모습이 잠으로 빼어났다. 그 동녀들의 몸에서는 묘한 향기가 나서 모든 곳에 풍기니 증생들이 이 향기를 맡기만 하면 물러가지 아니하여 성내는 마음도 없고 원수가 맺히지도 않으며, 간담하는 마음·이철하는 마음·구부러진 마음·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성내는 마음·못난이 마음·교만한 마음이 없고, 평등한 마음을 내고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고 이익되게 하는 마음을 내며, 계율을 지니는 마음에 머물러 탐하는 마음이 없으며, 그 소리를 들은 이는 기뻐하고 그 모습을 보는 이는 탐욕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 때 선재동자는 구족 우바이에게 예배드리고 나서 보살도를 닦는 법을 물었다. 이에 구족 우바이가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다하지 않는 복덕장(福德藏) 해탈문을 얻었으므로 이렇



구족 우바이의 법문

보살의 업 닦아 위덕, 광명 갖춰

증생의 바람 응해 이타행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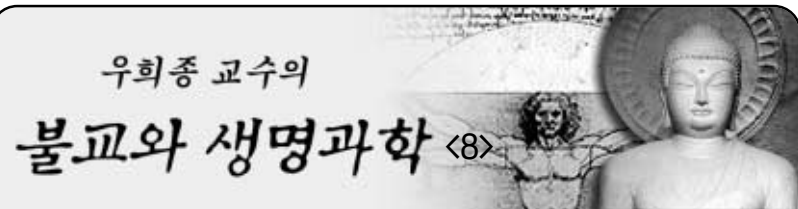
게 작은 그릇에서도 증생들의 갖가지 욕망에 따라서 갖가지 맛있는 음식을 내어 모두 배부르게 하니니 사방세계의 모든 증생들이라도 그들의 욕망을 따라 모두 배부르게 하여도 그 음식은 끝나지 않고 적어지지 않느니라. 음식이 그러한 것처럼 갖가지 생활용품도 또한 그러하다. 선남자여, 사방세계의 모든 성문과 연각이 나의 음식을 먹으면 모두 생문이나 벽지불과를 얻으며, 일생보처(一生補處) 보살이 딱히 되면 모두 마군을 항복받고 최고의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선남자여, 나의 일만이나 되는 동녀를 비롯한 백만 아승지 권속들이 모두 나와 더불어 갖가지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의 작용이 같다.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의 대중이 모

인 도량에 나아갈이 같고, 모든 부처님 세계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함이 같고, 모든 법문을 나타내어 보임이 같고, 보살의 청정한 행에 머무름이 같다. 선남자여, 이 일만 동녀들은 이 그릇에 좋은 음식을 담아 가지고 한 찰나 동안에 사방에 두루 가서 모든 보살 성문 독자들에게 공양하며 내지 여러 아귀들까지 배를 채우게 한다. 이 일만 동녀들은 나의 이 그릇을 가지고 천상에 가면 하늘들을 만족하게 먹고, 인간에 가면 사람들을 만족하게 먹인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다하지 않는 복덕장 해탈문만을 알 뿐이다." 이와 같은 구족 우바이의 법문은 광대무변한 보살의 이타행에 대해 설한 것이다. 우선 그녀가 머무르고 있는 성의 명칭이

해주(海州)인 것은 온갖 덕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 마치 바다와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의 명칭이 구족(具足)인 것도 십(十) 바라밀과 사십범과 사무량심을 구족하여 훌륭한 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평소 아무런 장신구도 하지 않은 채 소복단장을 하고 있다. 집안에는 의복이나 음식 가재도구도 없고, 다만 조그마한 그릇 하나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생활 모습에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내세우려 하지 않는 그녀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녀는 보살의 업을 닦아서 아름답고 단정한 모습에 위덕(威德)과 광명을 갖추고 있다. 그녀의 훌륭한 덕은 거느리고 있는 동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쳐 그들의 몸에서 묘한 향기까지 나도록 하고 있다.

조그만 그릇 하나에서 사방세계 모든 증생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낼 수가 있고, 그와 같이 갖가지 생활용품도 낼 수 있다고 하는 의미는 사람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진여(眞如) 본각(本體)의 마음이 사방세계의 모든 증생이 구하는 일체의 것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을 낼 수 있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다. 보살은 증생들의 바람과 구함에 응해서, 이들을 위한 광대한 원(願)을 일으켜 심바라밀·사십범·사무량심 등과 같은 대승의 보살행을 무량하게 공양하며, 내지 여러 아귀를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얼마든지 한 찰나 동안에 사방세계에 두루 가서 보살·성문·독자들에게 공양하며, 내지 여러 아귀들까지 배를 채우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생명의 여백(餘白) 논리

생물은 감각기관을 지니고 대상을 인식하여 반응하고 행동하게 된다. 자신이 인식하여 파악하지 않은 상황이 나 상대에 대해서는 일단 자기 보호를 위해 두려움을 지니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우 조심한다. 호랑이도 처음 보는 작은 동물에 대해서는 지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장면을 TV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생명체의 이러한 인식과정은 사물을 원인과 결과로서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완성함으로써 그 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여 편안함을 얻게 된다. 이러한 하나의 관점을 그 시대의 패러다임(paradigm)이라 부른다. 지금의 현대 사회는 '나는 생각한다

것은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사실·언어의 논리나 아닌 진리의 논리(이면·여백의 논리)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엄밀하게 말해서 경전의 이야기는 전혀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논리체계가 다른 것이다. 알고 보면 우리가 얼핏 보기에 매우 모순 되는 경전의 여러 표현과 모든 이야기는 놀랄게도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 이러한 이면(裏面)의 논리를 알아차릴 때 길고 긴 팔만사천 범문과 구약과 신약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역설과 모순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정밀하게 단 한 가지만을 가리키기 위해 그토록 논리적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떨어지는 햇살을 잡아라!)

경전, 언어 아닌 진리 표현의 논리

존재의 참모습 지혜로만 구분 가능

다. 고로 존재한다'는 소위 합리적 이성(理性)이라는 것을 큰 틀(paradigm)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합리적인 논리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렇기에 옛 선사는 '모르고 말하면 옳은 것도 그릇된 것이요, 알고 말하면 그릇된 것도 옳은 것이다'라고 짧막하고도 간결하게 말씀하셨다.

생물의 감각기관을 통해 바라보는 사물은 지식(知識)으로 알게 되지만, 육근(六根)에 머무르지 않는 존재의 참 모습은 결코 논리적이 아니다. 경전에 얼마나 많은 비논리적인 역설(逆說)의 말씀이나 표현이 있는가. 성경에도 그토록 사랑을 강조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 불화하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는 말도 있고 불경에도 '모든 증생을 제도하지만 제도된 증생은 하나도 없다'는 등, 일반적인 논리로 보았을 때 말도 안되는 황당한 소리를 앞출당스럽게 하고 있다.

그러면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갈팡질팡한 소리나 하는 미치광이인가? 그렇지 않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경전 공부하면 깨달아 성불하는 데 방해가 된다? 경전이라는 것이, 곧이곧대로 믿자면, 부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인데 부처님이 증생에게 일러준 말씀이 깨달음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될 것이다. 나 자신과 세상의 진상을 깨달아 해탈하려는 것이 부처님께서 그토록 입 아프게 간절히 말씀을 많이 하신 취지였지, 설마 해탈하지 못하게 방해 공작을 한 것이겠느냐는 말이다.

선종에서 지지인심경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이라고 외치면서 경전 공부는 곧 바로 질타를 가는 게 아니라 우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을 때에도, 경전 공부 자체가 반드시 깨달음에 장애가 된다고 단언하는 뜻은 아니었을 것이다. 선사들이 경전 그 자체, 또는 경전을 공부한다는 것 그 자체를 문제삼았을 리는 없다. 경전에 대한 태도, 경전 공부를 하는 태도에 시비를 걸었다고 보아야 한다.

어떤 태도를 문제삼는 것일까? 여러 가지들 꼽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경전 공부 자체가 불교 수행의 모두라고, 또는 적어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태도를 들 수 있다.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일, 자기에 재미있는 일, 자기가 잘 하는 일, 자기



선의 세계 ⑤

적지인심-4

의 전문분야에 매달리다 보면, 그 일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생기게 마련인 것이 사람의 속성이다.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도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다. 갖가지 전공분야가 있고 그에 종사하는 교수들이 있는데, 대개는 각

적혀두고 경전 풀이에만 매달리는 행태를 비판하였다. 경전 풀이 전문가들이라고 깨달아 성불하는 일이 불교의 요체임을 부인할 리 없겠고, 이를 위한 수행은 쓸모 없다고 주장할 리 없다. 그러나 선사들이 보기에 그들은 본말을 전도하여 말(末)에 집착

교학보다 스스로 마음 깨치는 일이 중요

자 자기 학과, 나아가 자기 분야가 가장 중요하고 학문의 총화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말로야 물론 다른 분야도 중요하다고 짐작케 인정하지만, 적어도 내심으로는, 또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태도에 젖게 된다.

경전 풀이 전문가들에게도 그런 증상이 흔히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선사들은 불교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깨달아 성불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럴

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옛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것을 철저히 다 공부하고 나서 마음 깨치는 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잘못된 길로 가는 셈이어서 엉뚱한 곳에 도달한다고 지적한다. 선사들이 흔히 쓴 표현을 빌리자면, "뚱뚱으로 간다면서 서쪽으로 가는 셈"이다.

뭐 그렇까지 심하게 말을 하느냐, 돌아가더라도 애썼던 목적지까지 가기만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항변할 수도 있겠다. 선사들은 이에 대해 더욱 강한 어조로 오공을 박았다. 처음에는 털끝만큼의 차이라도 나중에는 아예 하늘과 땅 사이만큼 벌어진다. 이것은 호리유차 천지현경(毫釐有差 天地懸隔)이라는 승전(僧禪) 스님의 심심명(信心銘)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다. 1도의 각도는 원점에 가까운 지점에서는 그야말로 달걀이 들어갈까 말까하지만, 수십 킬로미터까지 뻗어 가면 양반 사이의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 경전 공부에 매달리는 것이 그토록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는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지는 다음 회에서 풀이해보기로 한다.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유효학 핵심비결
송월스님의 두번째 작품 드디어 출간! 전국 서점 판매중!
神과靈이 통하는 학문, 유효학을 알면 운명이 바뀐다
동양철학은 동양문화의 기틀이요, 사색신도의 지표이다. 육욕락은 허와 실 2개의 원리 즉 수역을 분별함으로써 사색관개, 육심사제, 삼행팔심사주를 총론하여 우리생활에 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유효학이란 동국고금을 통하여 형제(宗)로써 가장 최우선을 놓은 학문이다. 이 책을 접하는 모든이는 물론이요, 운명에서 대하여 공경에 하는 이는 보배 준 보배가 될 것이며 귀천한 마음의 연성체가 되기를 지칭하기 위하여 확신하는 바이다.

대시 풀이보는 구성학의 사주풀이
문필여 선생님의 두번째 작품 드디어 출간 국내 최초의 역학 지침서
구성학이란 우주의 돌고있는 氣力를 이용하여 우리의 부족한 곳을 보충시키므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구성학을 알면 운명을 알고 운명을 알면 흥을 길은으로 바꾸어 오지라는 기를 보충시킬 수 있다.
◆ 구성학의 비밀을 소개한다
1. 정성이 억수인 무수인의 운명
2. 자식이 없거나 아들이 없는 여자의 운명
3. 결혼이 늦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여자의 운명
4. 가정의 변화 직업의 변화가 많은 여자의 운명
5. 부동산 4와 4의 대충의 운명
7. 일백에서 구구까지의 뜻

(靈,體) 영,체 이탈법 스님이 직접 특별지도
영, 체이탈이란?
가, 인간의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잠재능력을 자극하여 발달된 능력으로 영과체를 분리하여 자신과 타인의 영적인 문제와 운명적인 것을 해결하는 기법입니다.
나, 영, 과체가 분리되면 유체는 무체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다. (전생, 현생, 미래도 볼 수가 있다.)
다, 전혀 무관한, 타인을 통하여 자신이나, 또다른 타인의 몸에 빙의된 영가와 선망 조상영가를 볼 수도 있으며 영가와 자유롭게 대화도 하고 영가를 다스릴 수 있다.
라, 스님들께서는 영가천도 및 구명식식 등 산소, 집터 및 기타 운명에 관한 어떤문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마, 참가조건 : 출가스님만 가능함.(최고의 포교법)
바, 수업기간 : 단기간 집중반 복식교육으로 단기일내 신령한 영체이탈법 전문가로 변신 가능함.
● 일반인도 문의가능함.
● 수고비는 직접 면담으로 결정함.
● 스님직통 016-806-6378 / 연락처 02-2637-6636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 1동 597-77(지방본도가능함)

시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해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사 * 전국 서점 판매중 관음역서 시리즈
1. 헤서 명리진명 신국판 / 해서 조영수 편저 / 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관세력 4+매판 / 해서 조영수 편저 / 정가 15,000원 (사)
3. 신국판 / 해서 조영수 편저 / 정가 10,000원 (사)
4.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 / 김백만 편저 / 정가 12,000원 (사)
5.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 / 양정복 김용석 저 / 정가 3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이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A5신 / 양정복 / 정가 40,000원
어렸던 지금 시험을 치르고 준학을 사고 죽음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 / 김백만 편저 / 정가 40,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 / 백영지 저 / 정가 6,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판 / 양정복 이상욱 저 / 정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 / 양정복 진상백 저 / 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 / 김용중편저 / 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 / 양정복김성진 저 / 정가 30,000원
16. 신의공해용 공물이살림이대백과 신국판 / 정영우 저 / 정가 17,000원
17. 명가풍수의 개성비결 신국판 / 김홍식 저 / 정가 15,000원
18. 구성학의 사주풀이 신국판 / 양정복 / 문필여 후 / 정가 25,000원
19. 한국풍수이론의 정립 신국판 / 양정복 / 박용우 후 / 정가 25,000원

觀 法 寺
韓國靈,體移脫佛敎儀式研究院
住持,院長 道先 合掌